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5호

도쿄올림픽

네이버 스포츠,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생중계

이진영 뉴시스기자

日 시민단체, 도쿄올림픽 취소 소송... "시민의 생명 위협"

김혜경 뉴시스기자

해외 취재진 "과도한 방역 규칙" vs 日 여론은 정반대인데...

최진주 한국일보기자

난감한 日... 메달 퍼포먼스·주요 정상·스포츠 스타 '3無 올림픽'

이상필 스포츠투데이 기자

『K-Sports & Covid19』

레전드가 승부조작, 방역수칙 어긴 국대...국민 스포츠의 민낯
"확진자가 대체 무슨 죄냐" 코로나19에 무방비 공포, 현장 목소리는?
영국 스포츠심리학 권위자 "GX 음악속도 제한 터무니없어"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주제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무엇이 문제인가?

- ◇ 사회 :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 발제 : 주재현 | ESPOUSE EARTH 대표(변호사)
- ◇ 토론 : 전선영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강경식 | 법무법인 KNO 변호사
정민교 | 닥터런 대표

○ 일시 : 7/30(금), 오후 4시 ~ 5시 30분

○ 방식 : 실시간 온라인( zoom,  YouTube)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네이버 스포츠가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하고, 대표팀 소개 영상 등 특집 페이지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 스포츠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리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경기 생중계 및 주요 경기 VOD 콘텐츠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일과 PC의 특집 페이지(홈, 소식, 일정, 메달 섹션)에서 주요 경기 소식을 33개 종목별 이슈 카드와 스페셜 템플릿에 맞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타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232명 전원을 소개한 영상 콘텐츠를 준비해 각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선수 응원에는 특히 신기술로 개발된 음성 검색 응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앱의 음성검색을 누르고 '김연경 파이팅' 또는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면 해당 선수 응원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더불어 생중계를 시청 중 실시간으로 응원할 수 있는 경기별 라이브톡 기능을 지원하고, 각 경기의 기록 데이터(경기 일정, 결과, 메달, 순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 진행 경험이 풍부한 '올림픽 여신' 박선영 아나운서가 인기 아이돌과 예능인, 레전드 선수 등을 게스트로 섭외해 진행하는 네이버 NOW X 스포츠 올림픽 특집 라이브쇼 '박선영의 8에이트' 프로그램도 NOW와 V라이브를 통해 서비스된다.

네이버 스포츠 주건범 리더는 "이번 특집 페이지 안에서는 경기 생중계와 VOD 서비스 외에도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인 '매일매일 응원 챌린지'와 승부예측 퀴즈쇼 '팀코리아 예측고사'도 진행된다"며 "응원에 따라 스탬프와 올림픽 포인트를 증정하고, 미션 성공 시에는 네이버페이가 지급되는 등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서비스를 많이 기획했다"고 말했다.

일 시민단체, 도쿄올림픽 취소 소송...

“시민의 생명 위협”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일본의 시민단체가 대회 취소를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시민단체 '올림픽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네트워크'는 지난 9일 도쿄지방법원(지방법원)에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단체 소속 회원인 호리우치 사토시(堀内哲, 50)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며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해도 관계자 및 선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 없이 대회를 운영할 수 없다며 긴급사태 선언 중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의 재해 지원 강좌 조교인 하라다 후미우에(原田文植) 의사는 "취소는 당연하다"며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 대책에 유효한 백신 접종도 재고 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며 "올림픽 개최 중지밖에는 없다.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올림픽을 여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은 현재도 발령중으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동일본대지진에서 회복하는 '부흥올림픽'으로 내걸고 있지만 후쿠시마현 밖에는 아직도 피난자가 다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고소단'의 무토 루이코(武藤類子) 단장은 "(올림픽 개최는) 원전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부흥올림픽도 코로나19 극복 올림픽도 아니다"며 분노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의 출발지인 후쿠시마현의 'J빌리지'에서 제염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도쿄전력이 잔디를 심는 자원봉사에 어린이들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또 도쿄올림픽 개최식이 열리는 신국립경기장 건설을 위해 도쿄도가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주민을 퇴거시킨 것과 건설부지인 메이지(明治) 공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노숙인을 강제로 내쫓은 사례도 제시하며, '단 2주간의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권침해'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일본 스포츠진흥센터(JSC)와 정부 및 도쿄도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도쿄도와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이와 관련해 아직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외 취재진 “과도한 방역 규칙” vs 日 여론은 정반대인데...

도쿄올림픽 해외 취재진 사이에 방역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치솟고 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데도 외출 시 일일이 보고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대중교통 금지, GPS를 통한 실시간 감시 등으로 취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인권 침해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격리 면제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일본 여론도 같은 분위기인데다 언론은 해외 취재진이 방역 규칙을 어기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양측의 상반된 인식이 충돌하는 실정이다.

국제스포츠기자협회(AIPS)의 지아니 멜로 회장은 이달 초 온라인으로 열린 AIPS 세계컨퍼런스의 연설에서 “우리 언론은 일본 여러분의 적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플레이북을 받았는데, GPS를 항상 켜둬야 하고 배터리가 방전돼 꺼지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조차 알고 싶어하는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15분 내 돌아와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경비원에게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면서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취재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놀라워했다. “그들(조직위)은 (규칙을 어기고) 밖에서 돌아다닐 경우 일본인들이 우리를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면서 “인증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12일부터 도쿄에 긴급사태를 발령하게 된 일본 정부나 국민들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 면제를 해주는 대신 일반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해외 취재진의 호소가 전혀 먹히지 않는 셈이다.

11일 아사히신문 계열 매체인 AREA는 도쿄올림픽 해외 취재진의 방역규칙 위반사례를 긴박하게 전했다. 메인프레스센터(MPC)가 있는 도쿄 빅사이트와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청소 업무로 빅사이트에 매일 출입하는 제보자는 “점심시간에는 역과 빅사이트 사이 벤치에서 외국인들이 테이크아웃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고, 출근이나 퇴근길에 보면 분명 목에 대회 참가허가증을 걸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철이나 버스에 올라탄다”며 대중교통 이용 금지 지침을 어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REA는 기자가 직접 빅사이트역에서 취재한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역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나 햄버거를 주문해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경우, 전철이나 버스에 타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에게 체류 일수를 물어보기 위해 말을 걸었지만 모두 응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소셜미디어 공유 글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관리책임 지적이나 '오만한' 해외 취재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방역 규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일본 네티즌은 “자칫 외국인 기자단과 일본인 자경단 사이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난감한 日... 메달 퍼포먼스·주요 정상·스포츠 스타 '3無 올림픽'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가 메달을 깨무는 퍼포먼스를 볼 수 없게 된다. 확진된 선수는 출전할 수 없고 '기권' 처리된다. 하지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경기 출전 여부는 모호해 혼란이 우려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명 스포츠 스타는 물론 각국 주요 정상들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면서, 국제대회의 모습을 보여 줬 그간의 올림픽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계획도 어긋나게 됐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도쿄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메달을 목에 걸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쟁반에 담아 선수에게 제공하면 선수가 직접 메달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수나 포옹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메달을 딴 선수는 마스크를 낀 채 시상식에 참석해 스스로 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앞서 지난해 미국프로농구(NBA) 시상식에서 우승한 LA 레이커스 선수단도 트로피를 직접 챙긴 바 있다.

또 이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플레이북'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 선수와 코치는 매일 코로나19 타액 검사를 받는데, 양성 판정이 나오면 출전할 수 없다. 하지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모호하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플레이북은 밀접접촉자의 경기 출전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치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막식도 관중 없이 개최되는 가운데 대회 관계자의 참석 인원도 최소화하는 등 썰렁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은 23일 개막식에서 대회 관계자의 참석 규모를 100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OC 관계자와 후원사 등 1만여명 참석을 목표로 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참석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원수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 올림픽 개회선언도 나루히토 일왕이 마사코 왕비를 대동하지 않고 홀로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는 도쿄올림픽에 찾아오는 손님도 줄어줄게 했다.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해외 정상은 차기 대회인 2024년 파리올림픽을 여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하다. 일본 정부가 공들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질 바이든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검토 중이다. 일본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방일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의 불참도 이어지고 있다. 남자 테니스에서는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이 불참한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는 참석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했다. 또 여자 테니스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 시모나 할레프 등이 불참하면서 '맹탕' 경기가 열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레전드가 승부조작, 방역수칙 어긴 국대... 국민 스포츠의 민낯

프로 통산 135승에 빛나는 한 구단의 레전드는 승부조작에 참여했고,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해 뿔 자격을 얻은 선수는 방역수칙을 어겨 리그를 초토화시켰다. 국민 스포츠라 불리며 질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인기를 얻어온 프로야구의 민낯이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16년간 선발 투수로 활약한 윤성환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이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5억 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구단을 대표하는 ‘레전드’의 충격적인 말로에 팬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 야구 대표팀으로 뽑힌 박민우(NC 다이노스)와 한현희(키움 히어로즈)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부인과 만남을 가진 것이 발각돼 태극마크를 스스로 내려놨다.



박민우는 앞선 5일 팀 선배인 박석민, 이명기 등과 함께 원정 숙소인 호텔에서 외부인 여성 두 명과 사적인 술자리 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동료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여파로 인해 NC와 경기를 치렀던 두산 베어스 선수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KBO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박민우 등 NC 선수들이 방역당국의 조사 중 동선을 허위로 보고하고 은폐한 사실이 알려졌고, 급기야 NC 선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외부인이 한현희 등 키움 선수 2명과도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리그가 발칵 뒤집혔다. 한현희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5일 새벽 수원 숙소를 무단이탈해 강남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게, 오랫동안 선수들의 부정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폭행 연루부터 음주운전, 성폭행·성희롱, 승부조작, 학교 폭력, 약물 복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다. 비위 사실 방지를 위한 구단, 리그의 교육도 소용없었다.

그간의 사건들이 리그 내적인 이슈에 그쳤다면, 이번 술자리 논란은 궤가 다르다. 코로나19로 의료진과 전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만남을 가지며 사회 전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리그 내적으로도 재정 악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정 진행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실책을 저질렀다.

지키다가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코로나19에 걸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높아진 프로야구의 위상에 비해 선수들의 프로 의식과 윤리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0승을 넘게 거둔 투수가 승부 조작이나 하고, 불법 도박이나 하고 있는데 도덕 불감증이고 선수로서 윤리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야구팬들이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써가면서 응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선수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팬이 떠나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 팬을 다시 모으는 건 정말 어렵다. KBO리그에 속해 있는 야구계에 종사자들이 대오각성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프로야구 망하는 건 순간이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프로야구는 2017년 역대 최다인 840만 관중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2018년 807만 명에 달했던 관중은 2019년에는 728만 명으로 입장 관객 수가 크게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프로야구에 관심있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별로 관심 없다’는 26%, ‘전혀 관심 없다’는 38%였다.

프로야구 팬 A(31)씨는 “배가 불렀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일반인은 꿈도 못 꿀 생활을 누리면서 보답은커녕 각종 범죄나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선수들을 왜 응원하는 건지 자괴감이 들더라. 한 때는 내 삶의 전부야 야구였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 아니다. 선수들이 해마다 사회면에 나오는 게 놀랍지도 않다”고 일침 했다.

한편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사적인 모임이 추가로 더 있었는지 전 구단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KBO는 부적절한 사적 모임이 추가로 더 있었는지 전 구단에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적발되면 강력하게 징계할 계획이다.

mdc0504@kukinews.com

“확진자가 대체 무슨 죄냐” 코로나19에 무방비 공포, 현장 목소리는?

“솔직히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면 확진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오히려 현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후반기에 절대 확진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구단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KBO 리그가 코로나19 이슈로 멈췄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됐다. 정은경(56)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지역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개별 방역 조치를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발맞춰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움직였다. KBO는 12일 “전 사회적인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 및 선수단 내 확진자와 다수의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전 경기를 순연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1군 엔트리 기준 선수(코칭스태프 제외) 50% 이상 확진 및 자가 격리 시 2주 간 해당 경기를 순연한다”는 내용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추가했다. 이어 “해당 경기는 추후 편성되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즌 720경기를 정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반기 일정은 도쿄 올림픽 휴식기를 마친 뒤 8월 10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확진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A구단 관계자는 “두산과 NC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다른 구단에서도 확진자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야구는 단체 스포츠다. 더그아웃에서, 라커룸에서 30명 넘는 인원들이 왔다갔다 한다. 샤워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단 한 명만 확진 판정을 받아도 모두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KBO 리그 구성원이 방역 수칙을 어겨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NC 구단은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리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구단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연히 모든 야구 팬들이 NC의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다.

문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확진자는 환자가 아닌 마치 죄인을 대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웠다. 때로는 인권 침해도 당했다.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소중한 개인 정보와 동선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노출되기도 했다. B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들이다. 모든 KBO 리그 구성원들이 백신을 맞고 시즌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선수들은 버스로 원정 이동을 할 때에도 휴게소를 이용한다. 또 한 시즌 동안 절반은 원정 숙소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쁘면 걸릴 수 있지 않나. 현장은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KBO 리그는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뒤늦은 출발을 알리며 큰 박수를 받았다. KBO와 10개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방역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리그 중단 없이 한국시리즈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결국 올림픽 휴식기를 코앞에 두고 리그 중단 사태를 맞이했다. 이제 KBO 리그 구성원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는 이상, 현장은 계속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를 치르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심판과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치어리더, 배트걸, 배트보이 등 그라운드 주인공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영국 스포츠심리학 권위자 “GX 음악속도 제한 터무니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포함된 '그룹운동(GX) 음악속도 제한'에 대해 저명한 스포츠 심리학자가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부르넬대의 코스터스 캐러저지스 교수가 GX 음악속도 제한 규정을 이같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캐러저지스 교수는 30년간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스포츠 심리학자다.

그는 일단 당국이 규제 한도를 120bpm(분당 박자수)으로 설정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캐러저지스 교수에 따르면 120bpm은 건강한 심장이 1분간 뛰는 박동수의 2배가량이고, 보통 성인의 평균 1분 걸음수와 비슷하다.

또한 DJ들이 춤을 추지 않는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들이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음악들도 보통 120bpm 대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발걸음 등 움직임을 음악의 박자에 맞춰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러저지스 교수는 운동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박자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빠른 박자보다 노랫말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폭을 빠른 박자에 맞출 경우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외도 적지 않다는 게 캐러저지스 교수의 주장이다.

느린 박자의 음악을 선택하는 대신, 한 박자에 두 걸음을 내딛는 방식으로 운동강도를 높이는 운동선수들도 있다는 것이다.

캐러저지스 교수는 "120bpm보다 훨씬 느리면서도 극한의 운동 강도를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주간 스포츠 소식

확진자 계속 발생하는 도쿄올림픽보다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내년 동계올림픽

<https://www.insight.co.kr/news/349069>

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로지도 연수

<https://www.news1.kr/articles/?4374838>

故 손기정 선생의 아들 "아버지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10400007?input=1195m>

한국프로스포츠협회 4대 회장에 김희옥 KBL 총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6087000007?input=1195m>

[zoomin] 스포츠 산업으로 보폭 넓히는 블록체인, 투기 오욕 씻을까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7/13/QWZNSJVB5CWT

[OFNA6DJLLWL7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7/13/QWZNSJVB5CWT)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서비스 오픈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7161402003&sec_id=530101&pt=nv

프로야구 중단 공백기, 불법스포츠도박 기승 우려 '경고음'

<http://news.tf.co.kr/read/toto/1874689.htm>

[단독] 경기도, 전국 광역 최초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한다... 선수 인권보호 전담기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71850004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